

##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模試②解答例

### 問題1 次の韓国語を和訳しなさい

①미군들이 거리낌없이 활보하고 훈련장에서는 탄환이 표적을 벗어나 날아가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米兵たちが我が物顔で(不遠慮に)闊歩し、軍事演習場では弾が的を外れて(流れ弾が)飛び、民間人が犠牲となるのも一度や二度ではない。

②여기에는 직육면체 콘도도 없으며, 물소가 사탕수수 밭 옆을 걸어나고, 산호석 돌담에 둘러싸인 빨간 기와집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ここには直方体のコンドミニアムもなく、水牛がサトウキビ畑のそばを歩きまわり、サンゴ石の塀に囲まれた赤瓦の家が美しい景観を織り成している

③귀에 익은 민요가 들려오자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는 오키나와 아이들은 크면 “칼퇴근”해서 전통무용을 연습한다.

聞きなれた民謡が聞こえてくる/を耳にすると、肩をゆさゆさゆらしながら踊る沖縄の子供たちは、大きくなると定時でサッと帰宅し、伝統舞踊の稽古をする。

④저항 정신보다도 기나의 몸 안에 배어 있는 오키나와의 리듬, 그리고 주체하지 못하고 넘치는 끼에 주목했고, 라디오 방송을 타자 열풍이 불었다.

反骨/抵抗の精神よりも喜納の体の中に染みついている沖縄のリズムと、抑えきれずあふれんばかりの才能に注目し、オンエアされるやブームを巻き起こした。

⑤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석회 칠을 한 창고나 공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예로부터 왕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さびれた雰囲気漂う小さな町だが、漆喰を塗った蔵や工房などからしてもずっと前から往来でにぎわったことがうかがえる。

⑥부모 잘 못 만난 죄로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불쌍한 혼혈아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문제도 있다.

親に恵まれず父親の顔を知らないかわいそうな混血児たちが色眼鏡で見られたりする問題もある。

⑦나이 어린 남자아이가 더 어린 여동생을 돌보는 장면도 안쓰러웠지만, 기아에 허덕이다가 여동생이 죽은 사실에 가슴이 미어터지는 것 같다.

年端もいかぬ男の子がもっと小さな妹の世話をする場面もいじらしい/切ないが、飢え

にさいなまれその妹も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に胸が締め付けられ(張り裂け)るようだ。

⑧피폭후유증은 훗날까지 장기간 계속 되었고, 어머니가 피폭으로 인한 종양으로 돌아가셨는데도 위자료도 못받고, 또 형편이 어려워 고교 진학도 포기한 채 생업에 나서야 했다.

原爆症は後々まで尾を引き(長期化し)、被ばくによる腫瘍のため母親に死なれても慰謝料も出ず、また生活が苦しく高校進学も諦め食べるため働きに出ねばならなかった。

⑨목이 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손등이 주름살투성이인 그 고장 어르신들이 올라오면서 “나 같이 저승사자가 찾아올 날이 멀지 않은 노인네도 이렇게 꺾충 꺾충 올라가죠.”하며 뛰어올라갔다.

のどが渴き水を飲んでいたところ、手の甲がしわくちゃの地元のお年寄りが登ってきて「わしのようにお迎えが来そうな(棺桶に片足入れた)年寄でもこうしてピョンピョン登るのに。」と言いながら駆けあがった。

⑩총 2 킬로나 되는 이 상가는 한 때는 슬럼화되었지만 정경고 시간이 멈춘것 같은 향수어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소내장구이집이나 밥집 등이 늘어서 있다. 全長2キロになるこの商店街は、ひところスラム化していたが、ぬくもりがあり、時間がとまったような懐かしい感じがし、ホルモン焼屋や大衆食堂などが立ち並ぶ。

## 問題 2 次の日本語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①駆け足旅行では目に入らないかもしれないが、三十分ほど車を運転してみると、いやがおうでもその厳然たる事実を目の当たりにし、せっかくの楽しい気分が台無しになる。 주마간산식의 여행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나, 30 분정도만 자동차로 달리면 싫건 좋건 엄연한 사실을 마주하고는 모처럼의 즐거운 기분이 깨진다.

②カゲロウのようなはかない人生や「驕れる者も久しからず」的な貴族や武士の栄枯盛衰をテーマとした退廃的な作品など、そのテーマは深く尽きない。

아지랭이/신기루와도 같은 덧없는 인생과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다”식의 귀족이나 무사의 흥망성쇠를 테마로 한 퇴폐적인 작품 등 그 테마는 무궁무진하다.

③権力者として権勢の座にしがみつきたがっていた藤原氏には道真が邪魔者だったため、藤原は道真が権力を握ろうとしていると根も葉もない噂を言いふらした。

권력자로서의 권세를 계속 누리고 싶었던 후지와라 가문에게는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후지와라는 미치자네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④大宰府に左遷されてからは虚しく日々をすごし、望みを果たすこともなく不遇の一生を終えたが、死んでから彼に罪をなすりつけた関係者たちが疫病で次々に亡くなった。

다자이후에 좌천되어 허무한/막막한 세월만 보내다가 한풀이도 못한 채 불우한 생을 마쳤는데, 세상을 떠난 후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관련자들이 돌림병으로 잇따라 죽었다.

⑤九州最古の木造建築物で総ヒノキ造りの寺

큐슈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전체를 노송나무로 지은 절.

⑥教頭とともに芸者遊びをしたのが表ざたとなり、はじめはしらばくれていたが結局バレてしまった美術教師

교감과 함께 기생집에서 놀던 것이 발각되자,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다가 결국 꼬리가 밝힌 미술교사 .

⑦縁結びの神のご利益にあやかろうとして、生まれてこのかた男運が悪いと思っている女性から、面白半分で来る女性まで

천생연분”을 맺어주는 신의 효험을 보기 위해 생전 남자운이 없다고 여기는 여성들부터 재미삼아 찾아온 여성들까지

⑧原爆が落ち、焦土と化した広島で生き残った小学生ゲンと周りの人たちの生き方をまざまざと描いた漫画

원자폭탄이 터져서/투하되어 초토화된 히로시마에서 살아남은 “국민학생” 겐(元)과 주변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낸 만화

⑨袈裟を身に着け、手に数珠をかけた住職が、靴を一足ずつ下駄箱にそろえていれておくようにおっしゃった。

가사를 착용하고 손에 염주를 걸고 있는 주지가 구두를 한 켤레 씩 신발장에 가지런히 널도록 일러주셨다.

⑩醜く暗い現実の中にあっても、それから目をそらさず、清らかで明るい心で立ち向かおうという意気込みは生徒の心に響くのである。

추하고 칙올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서려는 기세가 학생들의 마음과 부합된다.

**問題③ 次の韓国語の単語を和訳しなさい**

- ①성수기 하이시즌 (繁忙期)
- ②특급호텔 最高級ホテル
- ③문패 表札
- ④휘파람새 우그이스
- ⑤SLR 一眼レフカメラ
- ⑥무장애설계 바리아フリー
- ⑦붓꽃 아야메 (菖蒲)
- ⑧산천어 야마메
- ⑨선비 儒教的教養を身につけた知識人
- ⑩가시밭길 いばらの道
- ⑪햇불 松明
- ⑫불로초 不老長寿の薬
- ⑬뒤꿈치 かかと
- ⑭목덜미 うなじ
- ⑮반올림 四捨五入
- ⑯누에 카이코
- ⑰걸절이 浅漬け
- ⑱황실 진상품 宮内庁御用達
- ⑲좌판 出店 (露店)
- ⑳싼 게 비지떡 安物買いの銭失い

**問題4 次の日本語の単語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 ①へちま 수세미
- ②一難去ってまた一難 산넘어 산
- ③目の上のたんこぶ 눈엣 가시
- ④刺青 문신
- ⑤パトカー 경찰차
- ⑥打たせ湯 폭포수
- ⑦湯治 온천요법
- ⑧カレイ 가자미
- ⑨棚田 계단식 논
- ⑩過疎地 인구과소지역
- ⑪辞表 사직서
- ⑫優先席 노약자석
- ⑬松葉づえ 목발

- ⑭名所旧跡 명승고적
- ⑮碁盤の目状 바둑판 모양
- ⑯変身願望 변신욕구
- ⑰土足禁止 신발을 벗고 들어가세요
- ⑱巻き返し 권투중래
- ⑲潮騒 파도소리
- ⑳浅瀬 얕은 바다

**問題 5 次の説明に該当する日本語の単語を書きなさい**

- ①온천물에 뜨는 하얀 침전물 ( 湯の花 )
- ②정면입구가 좁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집구조 (ウナギの寢床)
- ③에도시대에 각지에서 설립된 “향교”에 해당하는 관립학교 ( 藩校 )
- ④절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 門前町 )

**問題 6 次の日本語の意味を韓国語で説明しなさい**

- ①水割り 소주나 양주를 물로 희석시킨 것.
- ②厄年 일생 중 재난을 당하기 쉽다고 하는 나이
- ③枯山水 바위와 모래만으로 꾸미고 입체적으로 산수를 나타낸 검소한 정원 양식
- ④狛犬 신사 신전 앞에 설치된 한 쌍의 해태상

問題7 以下の文章を読み、下の質問に○か×でこたえなさい。

問題 京都流コミュニケーション

교토사람들의 소통방식은 아주 독특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식의 소통방식은 통하지 않고, “이해성”이 요구된다. 될 수 있는 한 꿀 먹은 벼어리 처럼 속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그 관건이다.이견에 대해 확실하게 주장하면 상대방에게 망신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애매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상책이다. 유명한 일화가 두 가지 있다. 교토 사람 집을 손님이 방문했을 때 주인이 슬슬 손님이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경우 “부부즈케나 드실래요?”라고 손님한테 물어 본다고 한다. “부부즈케”는 밥 위에 김이나 조림, 구운 연어 등을 올린 후 녹차를 부은 가정요리인데, 한국의 송늬과 비슷한 것이다.이럴 때 일부러 부부즈케를 만들면 주인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에, 손님도 그 심정을 헤아리고 귀가해 달라는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부즈케를 먹으면 눈치가 없다고 여겨진다. 또 향응접대를 받을 때 “화중지병”이라고 생각되는 게이코가 자기한테 아양을 떨고 있다고 해서 그녀에게 오늘 밤 어디 같이 가자고 손님이 권유하면 그들은 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고 한다. 하지만 전통무용과 음악으로 대접하는 그들은 진심으로 대답하는게 아니고 분위기를 고려하여 화기애애하게 접대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말일 뿐이다. 이럴 경우 “몇 시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랑 만나고 뭐뭐를 먹자” 등 확실하게 약속하면, 게이코들은 은근슬쩍하게 인상을 쓰고 “별 사람도 다 있군”이라고 내심 생각할 것이다. 게이코에게는 소위 “6 하원칙”은 금기이다.

이러한 교토사람들의 소통방식을 영문을 모르겠다거나 아이로니하게 들린다든지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교토는 1200 년간 천황과 귀족들이 다스리던 일본 유일의 도시이다. 그 동안 전란에 패배한 천황을 귀양보내거나, 권력을 잡은 장군이 천황을 갈아치우거나, 하급귀족이 후지와라가문에게 발목이 잡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상황에 처해, 다른 지방에 좌천되는 등 갖가지 충돌을 겪어 왔다. 그러한 역사를 직접 겪은 교토 사람에게는 “세치허가 화근이다”라는 소통방식이 형성되었다. 혹은 사자성어로 말하면 “화이부동”, 즉 반대하지는 않는데 상대방의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京都の人が異なる意見に対して反論しないのは相手の顔を立てるためである。○
- ②京都の人が「ぶぶ漬け」を勧めるのは主人に手間がかかり、費用もかかることを相手に察してもらうためである。×
- ③芸妓を外に誘って「おおきに」と言われても、真に受けてデートの約束をすると「野暮」な人だと思われる。○
- ④京都の婉曲的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タイルは1200年の古都の歴史が生み出した知恵である。○
- ⑤京都の人は表面上相手に合わせても自分の意見はしっかり持っている。○

**問題 8** 以下の文章を読み、下の質問に○か×でこたえなさい。

**問題** 大阪人

오사카 사람들은 동경에 대한 “대항의식”이 강하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팀으로 말하면 그라운드를 누비는 동경의 강팀 “요미우리”에 대해 오사카는 상대적으로 약한 “타이거스”의 만회를 기대하여 타이거스 용품을 장식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많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도시대의 장군, 현재는 관료가 지배하는 동경에 대해 “관료가 원데?”라고 적나라하게 말해, “표준어를 쓰면서 잘난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사투리를 거침없이 쓰는 사람들은 오사카사람들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동경사람에게는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걸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오사카사람들은 사실은 상인들의 수도였던 오사카를 진심으로 자랑한다. 상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먼저 고객위주의 창의력이다. 샤프펜, 컵라면, 자동 개찰구 등 뿐만이 아니라 신호등 옆에 설치된 카운트다운 미터, 공항에서 자주 보는 움직이는 보도 등, 모두 오사카 사람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발명한 것이다. 또 식문화로 말하면 오사카에서는 식사할 때 유부를 넣은 우동만으로 떤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바쁠 때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오사카사람이 고안해 낸 것이다.

“고객위주”는 바꿔 말하면 “손님이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손님인데 오사카사람들은 손님한테 농담을 자주 한다. 필자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정식 (600 엔)을 시켜 먹은 후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손님을 보고, 아주머니가 “600 만엔입니다!”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을 받아 손님은 “요즘은 엔이 비싸니까, 500 만으로 해 줘, 농담이야!” 라는 우스갯소리로 응대했다. 일단 바보같은 말을 한 후에 상대방을 반격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동경에서는 거의 볼 수 없고, 또 싱겁게 끝나버리면 상대방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서로 임기응변으로 재치 있는 농담을 익살스럽게 주고 받으면서 인간관계를 원활히 만드는 것이 오사카 스타일이다. “창의력”, “시간절약”, “농담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은 이 도시의 상인들이 만든 것이다

- ①大阪人の東京に対する対抗意識はアンチ巨人感情を**生み出した**。×
- ②きざな標準語を話す人の前でも方言丸出しで話すのは大阪人だけだ。○
- ③商人氣質の大阪人は顧客目線の発明によって暮らしを便利にしてくれた。○
- ④大阪人がきつねうどんを愛するのは早くて安くて**うまい**からだ。×
- ⑤東京人がぼけられてつっこまないのは、ギャグがすべると**気まずい**からだ。○

##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模試③ 氏名

### 問題1 次の韓国語を和訳しなさい

①일본 수상은 정계를 좌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정국의 부침이 심하다.

日本の首相は政界を思うままにする(意のままにする/ほしいままにする・牛耳る)ことはできず、政局の浮き沈みが激しい。

②선생님은 그저 상아탑에 갇혀 있는 “사이비 문화인”이 아니고 답사를 통해서 사회의 실태를 연구하는 사회학자이다.

先生は、ただ象牙の塔にこもる(浮世離れした)「えせ文化人」ではなく、フィールドワークを通して社会の実態を研究する社会学者だ。

③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관광객들이 충동구매를 자제하지 못하고 싹쓸이하는 바람에 매장의 물건이 사라질 때도 있다고 한다.

金に糸目をつけない/湯水のように使う観光客たちが衝動買いを抑えられずに買い占めるので、売り場が品切れになるときもあるという。

④외모에 신경쓰지 않고 언제나 제복의 소매를 걷어붙인 채로 숫다리에 나막신을 신고 별에 그을린 얼굴에 굵은 눈썹이 특징적이며, 성미가 급하고 덩벙대는 순경.

外見を気にせずいつも制服の袖を腕まくりし(たくしあげ)、短足にサンダル履きで、日焼けした顔に太い眉毛が特徴的で、気が短くそそっかしい巡査

⑤금방 익혀서 딱지를 떼어낸 영덕게가 전구 아래서 자랑스러운 듯 빛을 발하고 있다.

ゆでたての甲羅を外したズワイ(越前)ガニが電球の下で誇らしげに光を放っている。

⑥매일같이 악착스럽게 일만 하는 단조로운 도시생활에 실증이 나서 북해도를 방랑하던 중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식으로 여행지에서 만난 여자에 접근하는 남자와 강요를 받아 곤란한 여자.

毎日あくせく仕事ばかりする単調な都会生活にあきあきし(嫌気がさし)、北海道を放浪する(さすらう)中、「押しの一歩/押して押しまくれ」とばかり旅先であった女を口説こうとする男と、迫られて戸惑う女。

⑦언제까지나 허탈감에 빠져서, 슬픔에 젖어 눈물로 나날을 지낼 수는 없다.

いつまでも虚脱感(脱力感)にさいなまれ、悲しみに打ちひしがれたり、涙に明け暮れる日々を送ったりするわけにもいかない。

⑧덩굴이 얽힌 너도밤나무에 앉아 있는 호랑나비, 그것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사마귀, 벌집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꿀벌과 말벌, 거미줄에 걸린 무당벌레, 곳곳에서 뛰노는 다람쥐, 그리고 하늘을 나는 매 등.

ツタの絡まるブナの木にとまっているアゲハ蝶。それを襲おうとねらっているカマキリ。巢から顔を出すミツバチやスズメバチ。くもの巣にかかったテントウムシ。あちこちではねまわるリス。そして空を飛ぶ鷹など。

⑨등산하기에는 최고의 날씨로 주차장은 새울 곳이 없을 정도로 등산객이 많아, 필자는 이 북새통을 빠져 나와 먼저 짐 보관소에서 짐을 맡겼다.

絶好の登山日和で 駐車場に停める場所もないほど登山客が多く、私はこの人混みをぬけだし、まず手荷物預かり所で荷物を預けた。

⑩세상에 컵라면 1 개 900 엔이라고 하니, 바가지를 쓴것 같아 화가 났지만, 운반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いやはや、カップラーメン一つが900円とは吹っかけられ(ぼったくられ)ているようで腹が立ったが、配送料も含まれていると自分を納得させた。

## 問題2 次の日本語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①平均倍率 20 倍以上の狭き門を通った優秀なエリートたち

평균 20 대 1 의 경쟁률을 넘는 “좁은 문”을 통과한 우수한 엘리트들

②既成の座にあぐらをかき、各省庁の管轄する業務内のことに関して上司の指示のみ仰いでおけば経済的には親方日の丸でそれ相応の報酬を得られる。

기성의 자리에 눌러 앉아, 각 부처가 관할하는 업무내의 일에 관해서 상사의 지시만 따르면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뒷받침해 주고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③「ちゃきちゃきの江戸っ子」のイメージは、義理を欠いては男がすたると思い、損得勘定抜きに行動する人たちだ。

“순수한 동경토박이”의 이미지는 의리가 없으면 사내로서의 체면이 안 선다고 여겼고, 손익을 따지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④彼は「鬼のいぬ間に洗濯」と、勤務時間にも賭け事にうつつを抜かししたり、競馬においてまぐれで大穴を当て大儲けしたり、本業そっちのけで一攫千金を狙ったりする。

그는 “범없는 골에는 토끼가 스승”이라고 근무시간에도 노름에 정신이 빠지거나, 경마에서 요행수로 큰 돈을 따는 것 등 본업을 뒷전치고 일확천금을 노린다.

⑤このように面の皮が厚い厚顔無恥な男として描かれる両さんだが、町の商店街の主人

たちにとっては顔見知りのお客だ。

이렇게 낮가죽이 두꺼운 철면피로 묘사되어 있는 료상이지만 그 마을의 가게 주인들에게는 낯익은 손님이다.

⑥常連客ならばつけがきく飲み屋もあるため、夜には「千鳥足」のおじさんたちも多い。단골손님이라면 외상도 가능한 술집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갈지자로 걷는” 아저씨들도 많다.

⑦後先考えない密猟者たちの乱獲により、オオカミなど貴重な動物が絶滅した。한치 앞 밖에 못 보는 밀렵꾼들의 남획으로 인해 늑대 등 귀중한 동물들이 멸종했다.

⑧相手に言い返すより、とりあえず話に相槌をうちながらも、それとなく暗黙の了解をもとめることで事を荒立てずに丸く収める。상대방에게 대꾸하기보다는 먼저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은근히 암묵의 양해를 구함으로써 일을 복잡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한다.

⑨観光都市へと脱皮しようとしたが、大規模な各施設は閑古鳥状態で、小さな過失が知らぬ間に深刻な事態を招き、財政状態が悪化した。관광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했는데 대규모의 각종 시설은 모두 파리를 날리는 상태이며 “가랑비에 옷젖는 줄 모른다”식으로 재정상태가 악화했다.

⑩借金で首が回らなくなった彼は知人に嫌がられたり相手にされなくなったりし、疎遠になることも少なくなかった。빚 때문에 움푹달싹 못하게 된 그는 지인으로부터 미움을 사거나 무시당하거나 해서 소원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問題3 次の韓国語の単語を和訳しなさい

- ①암벽타기    록크라이밍
- ②민중의 지팡이    公僕
- ③흥정    値段交渉
- ④함흥차사    訪れたきり住みついた (故郷に帰らない) 音信不通になる
- ⑤송어    마스
- ⑥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濡れ手に粟/ぼろ儲け
- ⑦리히터 9    마그니튜드 9

- ⑧타향살이     よその土地でくらす
- ⑨유유상종     類は友をよぶ
- ⑩삼천리 금수강산   朝鮮の美しい山河
- ⑪웰빙생활     로ハス的生活
- ⑫서리     霜
- ⑬전나무     모ミノ키
- ⑭딱따구리     킥츙키
- ⑮고드름     つらら
- ⑯소라     사자애
- ⑰썰물     引潮
- ⑱친구 따라 강남간다   旅は道連れ/牛につられて善光寺参り
- ⑲다크서클     目のクマ
- ⑳엎친데 덮친다   弱り目に祟り目/泣き面に蜂/踏んだり蹴ったり

**문제 4   次の日本語の単語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 ①首相官邸   수상공관
- ②最高裁     대법원
- ③非常勤講師   시간강사
- ④ストーブ   난로
- ⑤ATM     현금지급기/인출기
- ⑥路上ライブ   길거리 공연
- ⑦個展     개인전
- ⑧縁の下の力持ち   숨은 공로자
- ⑨熊手     갈퀴
- ⑩脂がのったブリ   물이 오른 방어
- ⑪アザラ시   바다표범
- ⑫ゆかりの地   연고지
- ⑬異常気象   기상이변
- ⑭桑畑     뽕나무 밭
- ⑮揚げ出し豆腐   튀겨 조린 두부
- ⑯ロクロ     회전원반/물레
- ⑰潮干狩り   조개캐기
- ⑱あやつり人形   꼭두각시
- ⑲ポイ捨て禁止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⑳発泡スチロール   스티로폼

**문제 5   次の説明に該当する日本語の単語を漢字で書きなさい**

- ①에도시대에 가도에 따라 형성된 여관이 모여 있는 마을 宿場町
- ②정통 일식복장을 한 남성이 앉아서 익살스런 이야기를 하는 대중예능 落語
- ③손바닥으로 직접 두들기는 전통음악용 장구 鼓
- ④절 앞에 세워두는 분노의 표정을 짓고 근골이 우람하한 한 쌍의 수호신 仁王像

**問題6 以下の文章を読み、下の質問に○か×でこたえなさい。**

세계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비는 아사쿠사에서 북쪽으로 20 분 정도 걸어가면 상야지구이다. 이 마을은 보통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지명일지 모르지만 동경의 노숙자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도시 TOKYO 의 새로운 상징인 스카이트리와 그곳의 주변마을에 해당하는 여인숙 거리와의 대비는 이 도시의 양극화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상야에 오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과거가 있는 남성들”이 많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되어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하여 처가 도망가 “가문을 더럽혔다”는 낙인이 찍힌 유부남들 등 그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필자는 “문화시민” 동경사람의 한 단면을 보려고 상야로 향했다.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 시. 일부러 때가 낀 옷을 입고 “노동자스럽게” 분장했는데, 아침부터 할아버지들이 길가에서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필자도 조심조심 도둑고양이와 놀고 있는 남자들 옆에서 술을 마시며 여기 와서 몇년이 되었는지 묻자 아저씨는 필자를 힐끔힐끔 보다가 “당신이 알 것 없어”라고 무시하면서 다른 아저씨들과 “부도가 나면 끝장이야, 끝장!” 이라고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남의 제사상에 감놀아라 배놀아라”하면 안된다고 하는 암묵의 원칙이 있다.

그 후 경찰아저씨가 뜻밖에 필자와 같은 “보통사람”스러운 “새내기 청년실업자”를 보고 “잠시 검문하겠습니다.”라고 물어왔다. 필자는 취재 목적으로 왔다고 말하고 경찰관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다. 경찰관 이야기로는 경기가 좋고 일거리가 많았던 90 년대까지는 목돈이 들어와 집을 얻어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고, 신문을 돌리거나 손수레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불황과 노동자의 고령화로 인해 빈털터리가 되어 그 날 그 날의 숙소비용도 내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아졌다. 그래서 노동자전용 여인숙도 외국인 배낭여행자한테 문을 열기 시작했다.

- ①山谷に来る日雇い労働者の多くが「わけありの」男たちだ。○
- ②筆者が山谷で出会った老人は不渡りを出してホームレスになったと言っていた。×
- ③筆者がホームレスに無視され学んだのはここでは人に干渉するなということだ。○
- ④地元警察によると、働き口が多かった90年代までは借家暮らしの人もいたという。○
- ⑤筆者が警察に近づいたのは、山谷の取材をしたかったからである。×

**問題 8** 以下の文章を読み、下の質問に○か×でこたえなさい。

**問題**

미야자와 켄지는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사랑받고 있는 근대 작가이다. 그는 이와테현에서 태어나, 당시 죽을 병이었던 결핵으로 인해 3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생존시의 저술활동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몽환적인 작품만 쓰는 “백수건달”로 여겨져 왔지만 그가 남긴 많은 동화와 시들이 사후에 편집 출판됨에 따라 그의 작품세계의 풍부함과 깊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원래 물리교사였던 그가 쓴 문학작품들은 인문계, 자연계의 구분없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유복한 전당포 집에서 태어난 그는 자기 가족의 풍요한 생활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생산해 낸 이익을 착취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고통스러워 했다. 한편 부모들은 “가문의 영광”인 사업과 아무 상관도 없는 문학에 종종 자신을 잊고 몰두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풀리는 고지식하고 착실하기만 한 아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 상황에서 켄지는 자신의 생애를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 바치고 싶다는 열정을 갖게 되었다. 중학교 교사를 퇴직한 후, 농민들과 함께 작업복을 입고 밭 벗고나서 낫이나 호미로 풀을 깎거나 도끼로 나무를 베거나, 목공일을 하는 등 축사와 채소밭에서 농민과 똑 같은 생활을 했다. 농민출신이라면 몰라도 유복한 집안 출신인 켄지같은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었다. 이양기도 없는 그 시대에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말만 앞선 탁상공론을 싫어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농민들과 함께 뼈를 깎는 고생을 했다.

- ①生前の賢治はファンタジックな作品を書く無業者と思われていた。○
- ②賢治は物理教師だったため、彼の作品は特に理系の学生の間で人気がある。×
- ③賢治の家業は質屋だったため、貧しい人から取り立てて自分の暮らしが成り立つことに嫌気がさした。○
- ④賢治の両親は、家業より文学に熱心な息子のことをあきらめていた。×
- ⑤教師を辞めてからの賢治はたった一人でも農業や大工仕事に精を出した。×

**問題 9** 次の日本語の意味を韓国語で説明しなさい

①浮世絵

화류계 여성이나 연극배우, 명승지의 풍경등을 소재로 그린 에도 시대의 풍속화

②招き猫

앞아서 앞밭로 손님을 부르는 고양이 장식물

③節分の豆まき

2월 3일 잡귀를 내쫓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콩을 뿌리는 행사

④流鏑馬

무사로 분장한 남자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 과녁을 맞추는 무예